

4.29 기념... LA를 화합과 포용의 도시로

한인 중심으로 다민족 기념 예배 드려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 회장 임혜빈)와 남가주교회협(회장 변영익 목사)이 주최하고 흑인, 히스패닉, 백인, 유대인, 아시아계 다민족 커뮤니티가 참여한 '4.29 다민족 기념 예배'가 29일 주님의영광교회에서 거행됐다.

이날 비영리 단체와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LA 커뮤니티 영웅 시상식, 연극, 사물놀이 등이 진행됐다.

이날 상을 받은 이정희 여사는 소감에서 "나와 피부색이 다르지만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라 생각한다"며 "20년 전 4.29에 오늘 같은 화합이 있었다면 우리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서로 화합하고 포용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련 좋겠다"고 전했다.

이 여사는 4.29 폭동 당시 LA 한 인타운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故 이재성 군의 어머니이다. 당시 산타모니카칼리지 1학년예 재학 중이던 이 군은 한인타운 곳곳이 불



인종 갈등 4.29 폭동을 기념하며 다민족이 모여 화합과 포용을 기원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약 1천명이 참석했다.

에 타자 친구들과 한인업소를 지키려다 오인사격을 받아 변을 당했다.

기념예배에는 연방주재도시개발국 존 트라스비나 차관보,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 존 페레

즈 가주 하원의장, 에디 이 백악관 국민참여위원 등이 참석했다. 토마스 맹 기자

미래형 예배음악, 진정성과 거룩성 겸비해야

월드미션대, 예배음악 심포지엄 열어

오늘날 전통예배와 열린예배, 그리고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이머징예배 등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대한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예배음악에 대한 인식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월드미션대학교는 예배음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예배와 음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미주 한인교회의 예배음악을 전통 예전, 클래식 음악, 현대음악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

고, 이를 바탕으로 예배음악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월드미션대 음악과 윤임상 교수의 사회 하에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풀러신학교 김은철 교수를 비롯해 합창지휘자로 잘 알려진 진정우 박사, CCM의 거장 '꿈이 있는 자유' 멤버로 활동해 온 정종원 목사 등 3명이 발제자로 나섰다.

미래형 예배음악 이 시대 미주 한인교회의 사명

먼저 김은철 교수는 전통 예전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의 예배음악의 역할과 미주 한인교회의 사명을 모색했다. 프린스턴신학교, 드루대학교 등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현재 풀러신학교에서 설교학과 예배학을 가르치고 있다.

김 교수는 먼저 "영혼의 능력이 자 삶을 풍성케 하는 음악을 통해서, 승화된 인간의 감정을 보다 잘 표현할 수 있다"며 음악의 미학에 대해 정의 내렸다. 그는 "예전의 원전적 기초는 신비와 거룩성인데 음악에도 이러한 신비와 거룩성이

있다"며 "하나님의 임재가 재현되는 예배음악은 곧 예전적 표현이므로, 예배음악이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도록 계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화답 형식으로 생겨난 예배음악에는 반드시 성경의 정통성과 대중적 호소력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끝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예배음악에 대한 사명을 가진 지도자들에게 교회음악의 본질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형 예배음악이 나타나야 한다"며 "세계적인 가치관과 영성을 지닌 미주 한인교회가 예배음악의 새로운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미국과 세계를 변화시켜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6면에 계속

INTERVIEW

알 만한 사람만 아는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교회

포항중앙교회. LA 한인사회에 비교적 잘 알려진 교회는 아니다. 포항 뿐 아니라 한강 이남에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대형교회인 이 교회가 생소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흔재'가 아닌 '함께' 하는 목회와 사역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포항의 복음화율은 10%대다. 상당히 낮은 수치다. 그런데 포항시인 51만명 중 1만명이 포항중앙교회 성도다. 1년에 움직이는 예산만 1백억원이 넘는다. 마음만 먹으면 맨파워와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이 교회는 혼자 하지 않는다. 지역의 작은 교회와 함께 발맞추며 그들을 도와 지역 복음화 사역을 한다. 해외 사역을 할 때도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형제 교회라 불리는 이민교회를 도와 그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뒤에 서 있는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알 만한 사람만 아는' 그런 교회가 됐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서임중 목사도 그렇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목회자다. 작년에는 뉴욕 한인교회 최대의 집회 할렐루야대회를 성황리에 인도해 유명세를 탔고 올해는 시카고 할렐루야대회를 인도한다.

한국의 대표적 정치 지도자인 故 박태준 총리에게 세례를



서임중 목사

준 이도 바로 서 목사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예배를 찾아 온 박 총리에게 "표 얻으러 예배 왔다면 심히 유감"이라고 공개적으로 조언을 할 정도로 임이 매운 사람이었다. 결국 1991년 박 총리는 포항중앙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다. 포항제철 신화의 주인공이자 포항의 가장 최고급 지도자가 교회에서 무를 꿰는 이 사건은 일간 언론에도 대서특필됐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박 총리가 별세한 후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진 사회장(社葬)에서 서 목사가 축도하기도 했다.

이제 서 목사의 감추어진 목회 이야기를 들어 보자.

→ 2면에 계속

TAX 문제 전문 자산통계 및 은행구좌 차입해결, 법인세금삭감, 세무감사대비
신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전문가, CPAs

Clients	Case (Dec/11-Jan/12)	Results
Mr. Hwang, W	IRS \$62,317	환의 \$8,218
Mr. Lamonier, H	FTB \$118,874	환의 \$1,700
Ms. Wilson, M	IRS \$450,190	환의 \$20,160
Mr. Kim, H (C. Corp)	BOE	Sales Tax Audit Audit Dismissed
Mr. Rogers, A	IRS \$327,280	Levy lifted & \$500/mo
Mr. Farley, C	IRS \$3,112,350	환의 \$0

TAX HELP TEAM (213) 248-0221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장재효 목사 초청 춘계영성집회



약력소개

- 총회신학대학원 졸업
- Faith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과정 이수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교신학연구 과정 이수
-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신학박사과정 이수
- Faith Evangelical Seminary 명예박사
-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 성령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역임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역임
- 전국기도원 총 연합회 총재
- 성은동산(기도원, 경로원, 수양관) 원장
-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목회자 특별 세미나

주제: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

집회 일정	5월 4일(금) 엘에이 평화교회 (담임목사 김은국)	저녁 8시
	5월 6일(일) 엘에이 평화교회 (담임목사 김은국)	오전 11시
	5월 9일(수) 엠마오 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민섭)	저녁 7시30분
	5월 10일(목) 세계의료선교사 육성재단 (대표 박승부)	특강 저녁 7시30분
	5월 11일(금) 남가주 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저녁 7시30분
	5월 13일(일) 남가주 왕성교회 (담임목사 안경찬)	오전 11시
	5월 14일(월) UCS신학대학 (총장 아브라함 최)	특강 저녁7시
	5월 15일(화) UCS신학대학 (총장 아브라함 최)	특강 저녁7시
	5월 16일(수) UCS신학대학 (총장 아브라함 최)	특강 저녁7시
	5월 20일(일)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오전 7시45분, 오전10시
	5월 27일(일)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오전 7시45분, 오전10시

일시 5월20일(일)-22일(화)
장소 세코야 팍 산장
문의 213-739-0403

주 관 : 국제성은복음선교회(International Holy Grace Gospel Mission)

후 원 : 남가주 한인목사회, 풍성한선교회, 엘에이 평화교회, 엠마오장로교회, 세계의료선교사 육성재단, 남가주리더교회, 남가주왕성교회, UCS신학대학,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의 절차탁마 목회 이야기

위기의 한국교회, 교회는 없고 예배당만 있는가



해 명작품이 되게 하는 화가의 마음으로, 다양한 돌을 가지고 다양한 걸작품을 만들어 내는 조각가의 마음으로 교인 하나 하나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는 목회를 예심목회라 합니다.

넷째는 시심(施心)의 목회입니다. 목회의 기본틀이 나눔입니다. 배움입니다. 그것은 구체적 개념의 예수님 사역입니다. 그것이 전도이며 구제이며 봉사입니다. 여기서 이해와 관용과 용서와 사랑이 연출되는 복음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시심은 또한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낮아질 수 있어야, 겸손함이 있어야, 사랑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시심입니다. 이것은 목회의 거듭입니다.

-포항중앙교회는 예상 통합측에 속한 교회이지만 교단과 교파를 넘어 해외의 이민교회들과 형제 교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형제 교회란 무엇이고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뤄지고 있나요?

포항중앙교회는 세계선교를 목표로 오대양 육대주에 선교협력 교회를 결연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호남권 중심의 광주 서립교회와, 중부권 중심의 전주상당교회와 형제 결연을 맺어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목회 정책을 공동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미주 지역 중 동부 지역에 뉴욕목양교회, 서부 지역에 세계성경장로교회, 남미 지역에 아르헨티나중앙교회, 유럽 지역에 프랑스 파리장로교회, 동북아 지역에 중국 연길교회와 천진 열림교회, 동남아 지역에 인도네시아 열림교회와 형제 교회 결연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올 8월에 로론도 영광교회와 결연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제 교회로서의 사역 내용은

첫째 목회정보 교환 및 공유입니다. 각 지역 교회가 목회의 장점을 상호교류하고 협력함으로 교회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교 협력입니다. 포항중앙교회가 세계 각 지역으로 선교 정책을 펼쳐 나가려고 하면 그 한계에 이를 수 밖에 없지만 지역

작되면서 오늘에 이르도록 통용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위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한마디로 세속주의, 몰락주의라고 표현되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주제, 곧 예배와 교육과 같은 내적인 현상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성장 일반

한국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위기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라지고 예배당만 남아있는 유럽이 오늘 한국교회의 거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한국교회는 위기와 진단을 제기하고 풀어나가야 하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더 몰락하기 전에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위기를 감지하고 대안을 수립하여 한국교회만의 힘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역추적 하면 됩니다. 즉 대형교회와 문제라면 대형교회들이 지역의 작은 교회들과 연합해 지역 복음화를 도와야 합니다. 대형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짓기 전에 작은 교회를 돌보아야 합니다. 작은 교회들이 무너지면 모두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대형교회에 속하지만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교회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다수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은 있으나 빛이 없다는 위기 진단이 나왔다면 빛을 발하는 교회로 변모되어야 하고, 세상과의 소통이 문제라면 소통 방법이 구체화 되어야 하고, 재정 투명성이 문제가 되면 보다 제도적인 재정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목회자의 자격론이 제기되면 신학교 경영문제와 관련된 현실적인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교회와 신학교가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인재 양성이 문제라면 재교육 프로그램의 현실을 재점검하고 그 부분에 교회가 투자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 책임 의식이 결여된 것이 문제라면 그 해답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통감, 농심, 예심, 시심이 목회 요소

전세계 한인교회 형제 결연 맺어 공동 사역

한국교회 위기, 이제라도 정신차려야

형제 교회를 통하여 선교 협력을 함으로 극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하여 현재의 열림교회가 부지를 확보하고 포항중앙교회가 선교센터를 건립하여 공동으로 선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셋째는 다음 세대의 글로벌 지도력 향상입니다. 다음 세대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국제적인 상황을 접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방문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적 성장과 성숙을 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청년부의 단기선교를 통한 교류, 어린이 축구단의 상호 방문 교류, 의료선교팀의 활동, 당회 및 각 기관부서의 공동수련회를 통한 보다 안정적인 교회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큰 위기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해법은 무엇이라 보시는지?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말은 어제 오늘의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마치 말세라는 용어가 기독교가 시

도의 교회 현실은 지상 제일주의의 아픔에 함몰되어 병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없고 예배당만 있게 되는 우려의 현실화, 사회적 공신력과 영향력 상실, 교파 중심적인 교회론의 역기능 현상, 성직자 양상으로 인한 성직자 자격상실론과 함께 제기되는 지도력의 문제, 다음 세대의 영적 유산 상속의 불투명한 현실과 대안 부재, 기독교 가치관 타락, 일부이지만 종교권력화 현상 등은 그 나라(천국)에 대한 믿음과 그 분(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무서움 정도로 세속적인, 가시적인 것들에 치중해 버린 소위 몰락주의적 병리현상에서 기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고야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진단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위기라고 정의하는 것이 정확하리라 봅니다.

서구교회의 역사를 말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 전철을 무서울 정도로 밟아가고 있음에도 마치

-포항중앙교회의 성장 스토리가 놀랍습니다. 목사님께서 통감(通鑑), 농심(農心), 예심(藝心), 시심(施心)을 목회의 중요한 요소로 꼽으셨 습니다.

이 네가지 목회 요소는 오늘의 제 목회 현장이 있게 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통감(通鑑)의 목회입니다. 통감이란 역사(歷史)란 뜻을 갖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역사는 지나온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만 통감은 지나온 사실을 오늘의 거울에 반사시켜 내일을 조명한다는 깊은 단어입니다. 어제는 오늘의 거울입니다. 오늘의 거울 앞에서 내일을 조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농심(農心)의 목회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위한 경경(起耕)과 씨뿌림과 가꿈과 거둬의 함축된 용어가 농심입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목회를 할 때 그 목회 현장 참으로 윤택하고 아름다움이 열매 맺게 됩니다. 그 아름다움은 거둬의 시간까지 말할 수 없는 뜻과 수고와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농심의 목회입니다.

셋째는 예심(藝心)의 목회입니다. 농심을 씨뿌림이라 하면 예심은 가꿈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사의 마음이 예술가의 심정이 되는 목회입니다. 다양한 화선지에 그림과 글씨를 통

TOP MEDIA
교회학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담하게 부결사건,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RETREAT CENTER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에서!

예약 및 문의: 고세희 1539 E. Howard Stree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conferences/Korean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에 관하여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와 미국 국제 선교 센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s)는 1976년 앨프리드 로버트 윌러에 의해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35 에이커의 시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할 수 있는 공간, 각 그룹마다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 전략과 훈련을 위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초청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는 가진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첫째 목표가 이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은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초청하며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런 문제 제기과 대안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이론적으로 제기해도 지도자들의 의식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해결이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자가 요구되고 칼빈과 루터가 그림자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교회에 주시고 싶은 조언이나 목회자들에게 당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지난해 뉴욕 할렘루아대회 강사로 초청받고 말씀 사역을 하였습니다. 수없이 절제

중건 원로 한 분은 지상 칼럼을 통해 제가 백번 옳은 말을 했다고 반성하면서 "그것은 오늘 뉴욕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라고 기고하신 것을 읽어 보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보다 한 차원 높은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 발전해야 하리라는 글과 말씀으로 공감하시고 격려해 주셨지만 그 이후 이민 교회에 대한 조언이나 목회자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는 질문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조언이나 하고 싶은 말은 격려, 축복도 많고 중요하지만 충고, 권고의 말씀도 있기 때문

복받은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민교회와 목회자들이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인지했으면 그 축복은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민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원론적인 조언입니다.

-목사님은 뒤늦게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목사님의 사역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저는 40세에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교육공무원으로 생활하다가 3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시작하여 늦깎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는 동안 정말 하루도 쉬엄을 정도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인을 모를 두통으로 한 달간 고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곧장 학교에 사표를 내고 35세에 신학을 시작해 40세에 목사로 안수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두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나귀로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정말 주님은 저를 나귀로 사용하시는데 하루도 쉬엄을 정도로 23년 동안 부족하고 나약한 저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늦게 목사가 되어도 누구 못지 않게 쓰임받는 주님의 나귀가 되어 온 세계 전국 방방곡곡을 주님 모시고 주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님의 나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목사라는 악기(樂器)를 잘 연주하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목사도 하나의 악기입니다. 똑같은 악기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청중들의 반응이 다른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귀를 막고 고개를 가로챈 연주가 아니라 마음을 모아 경청하는 연주를 해야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목사의 악기를 연주한다는 생각과 마음을 단 한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목회 현장의 성도들, 부흥회나 세미나에서 회중들이 저의 목사 악기 연주에 감동하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몸부림 치는 목회를 합니다.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의 사명에 관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인가요?

저의 목회 철학은 한 마디로 '너의 유익을 위한 행동하는 나의 삶'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었고 가리집이었기에 제 삶의 철학도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저의 목회는 마태복음 11:28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영



혼과 정신과 육체가 병들어 고난 가운데 헤매일 때 주신 말씀이었고 이 말씀으로 저의 목회는 시작 되었습니다. 제 목회 기본 방침은 "생명이 풍성한 교회"(요한복음 10:10)라는 명제 아래 치료하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모든 영혼을 치료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병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목회 기본 방향을 설정했던 것입니다.

이 목회 철학을 중심으로 구약에서는 잠언 3:27 말씀,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3:14-15 말씀을 일삼하고 있습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까지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한마디로 제 목회 철학은 "너의 유익을 위한 행동하는 나의 삶", 곧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으로 정의했고 지금까지 이 철학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정립된 목회 철학이 언행일치의 삶입니다. 구체적 행동 철학으로 절차탁마(切磋琢磨)입니다. 인생도 삶도 목회도 나의 인격과 신앙도 절차탁마, 곧 자르고 갈고 쪼고 닦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욱불탁불성기(玉不琢不成器), 인불학부지도(人不學不知道)를 두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옥도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고,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목회자의 삶이란 언제나 그렇지만,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나눔과 베풀이 있는 따뜻한 가슴으로 감격하는 목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

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푸름이 드리워진 목장을 가꾸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위로 위한 행동하는 나의 삶,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있고, 책망 받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목회, 미워함이 있을 때 기도하는 목회, 괴롭힘이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엮어내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감격할 줄 아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눈,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불타는 가슴, 많은 이들의 아픔을 쓸어 안고도 남을 넓은 가슴으로 목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한 마디로 함축하면 절차탁마 목회입니다. 자르고 갈고 쪼고 닦음은 인격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지만 나는 무엇보다 목회에 필요한 교훈이라 생각되어 목회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네 목사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형 기자

축복받은 이민교회, 이제는 나누어야 너의 유익을 위한 행동하는 나의 삶 목사라는 악기 연주하는 헌신된 목회

하고 또 절제하다가 가슴에 불타 오르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님의 강한 메시지를 결국 제 입으로 외쳤습니다. "뉴욕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너무 교만해 있다." 어쩌면 이 말은 죽을 각오를 하고 쏟아낸 말입니다. 세계 제일 국가의 제일 도시에서 살아가는 한인교회와 한인교회 지도자들이 이 소리에 '아멘' 할 분은 없을 뿐 아니라 마음이 상하기도 하리라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할렘루아 대회에 참석하면서 이 한마디는 해 야만 한다는 강한 마음의 소리,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그 말을 외쳤습니다.

전체 메시지 중 축복의 메시지가 99%였다고 한다면 그런 직설적 권고의 말씀은 1%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때 직간접으로 제게 가해진 언어 폭력과 회초리는 엄청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너 자신이나 교만하지 말아라"는 항변이였습니다.

강단에서의 말씀은 그 기능이 어쩔 수 없이 약화되고 귀에 듣기 행복한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이 이민 목회의 현실이 되다 보니 너무나 없이 우리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의 진정한 감동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한마디에 뉴욕교계의

입니. 사람들은 너나없이 축복 언어는 듣기 좋아 하지만 권고 언어는 듣기 힘든 본성이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조언 하라면 교회도 목회자에게도 "축복 받은 삶을 멋지게 연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해외 한인들은 누가 뭐라 해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본질은 축복받고 축복하는 차원 높은 삶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 복은 나누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해외 한인교회와 성도들, 특히 목회자들은 분명한 것 한가지 축복받은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민들보다는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 여건과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축복받은 삶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냐는 것입니다. 겨우 세기 밥 잘 먹고 일상생활이 남보다 낫다는 비교 개념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받은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이민사회를 선도할 거룩한 사명이 있기에 축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일선

전문적으로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를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시인제,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24hr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그렉 (Greg) 직통: 213.278.5927 Office: 323.556.5386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어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www.LAORT.edu

•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 New York : Forest Hills Tel. 718.261.5800

•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 Chicago : Skokie Tel. 847.324.5588

약도 Bus 20번 Lajolla Fairfax 맥도널드 Wilshire

4.29 20주년 “요셉처럼 다시 일어서자”

원팔연 목사 LA 한인들에게 당부

25일 원팔연 목사(전주바울교회)는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남가주영적대각성집회에서 요셉의 삶을 조명했다.

원 목사는 요셉이 크게 쓰이게 된 이유를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중요성을 메시지 서투에 강조했다.

원 목사는 “요셉은 무엇을 하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자마다 복과 은혜를 입었다”며 “요셉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자”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원팔연 목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성도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전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에 대해 “믿는 자들 때문이다. 직장이나 삶의 터전에서 믿음직스럽게 살면 왜 손

가락질을 받게겠는가. 양심적이지 않고 정직하지 않아서다”고 했다.

또 그는 모인 성도들에게 요

셉처럼 역경을 이겨내라고 당부했다. “요셉은 몰리고 쫓기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이고 정직했다. 그는 어떤 역경과 환란도 피하지 않고 이겨냈다. 꿈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는 것이다. 정직하게 사명감을 갖고 살자. LA 땅을 복음화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가주교회 주최로, 4.29 폭동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집회는 20년 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LA 한인들에게 이민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꿈을 심어 주었다.

토마스 맹 기자

말씀듣고 기도응답받는 에바다 은총



남가주동신교회에서 열린 이번 집회는 입추의 여지 없이 본당이 가득 찬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진행됐다.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는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입이 열려 주님께 기도하는 은총을 체험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25일 세계성경장로교회(강신권 목사)에서의 부흥회를 시작으로 남가주동신교회(송병렬 목사),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고대형 목사)까지 총 19회의 부흥 집회를 5월 6일까지 인도하고 있다.

27일 남가주동신교회에서의 첫날 집회에서 그는 “에바다의 은총을 체험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서 목사는 마가복음 7장에 나온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쳐 주신 기적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에바다는 ‘열려

라’는 명령인데 무엇이 열려야 하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가 예배 때 앉아 있어도 말씀에 귀가 막혀 있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수 없는 어눌한 기도를 하면 소용이 없다”고 지적하며 “에바다의 은총을 체험하라”고 도전을 던졌다.

교육공무원으로 일하다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40세에 목사안수를 받은 서 목사는 포항중앙교회에 부임해 이 교회를 한강 이남의 대표적인 대형교회로 성장시키고 전교했다. 서 목사는 마가복음 7장에 나온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쳐 주신 기적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에바다는 ‘열려

김준형 기자

장향희 목사 신유부흥집회

‘병고침의 역사’ 일어나



장향희 목사가 LA를 방문해 신유의 은사를 성도들과 나누었다.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열려

“주님께서 채증장을 낮게 해 주셨습니까.”

“허리 통증이 없어졌어요.”

1시간 반 동안의 집회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수만 해도 줄잡아 50명은 되는 듯 했다. 괴롭하던 통증이 사라지고 고질병이 나았다며 저마다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29일 저녁 장향희 목사 초청 신유축복대성회에서는,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 목사)에서 26일부터 나흘간 계속된 이번 성회는 연일 신유 은사를 갈망하는 교인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강사로 초빙된 일산 든든한교회 담임 장향희 목사는 30년이 넘게 2천여회의 부흥회를 인도한 베테랑 부흥강사다.

지난 2004년 6월 척추협착증으로 쓰러져 손가락, 발가락도

까닥 못하고 전신마비로 고통스러워 교회마저 사임해야 할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그때 그는 지난날의 교만과 우쭐함을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1시간 동안 몸을 전후 좌우로 만져 주시며 흔드시는 경험을 하고 척추의 붙은 것이 떨어지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한다.

이날 집회에서는, 그의 개인적 체험이 전 교회적 차원으로 재현된 것이다.

이번 장 목사의 신유부흥집회는 말씀이 주를 이뤘고 기도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이 특징이었다. 이날 ‘성령과 은사의 복음’을 주제로 설교한 장 목사는, “성령을 통해 은사가 나타나며, 성령을 통해 내적 역사와

사랑의빛선교회 19주년

장로·안수집사 임직예배 드려



사랑의빛선교회 임직자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 부르심의 삶 살라

사랑의빛선교회가 창립 19주년을 맞이해 장로, 안수집사 임직예배를 지난 29일 드렸다. 이 예배에서는 장로 신석화, 명예 안수집사 김영덕 외 4명, 안수집사 곽경우 외 26명이 임직해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세워졌다.

설교는 안동주 목사(생수의강선교회)가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본문으로 전했다. 그는 “3000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권면을 맡은 박병섭 목사(샌디에고사랑교회)는 “여러분들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감사함으로 살라”고 당부

했다. 또 그는 임직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며 쓰임받으실지 고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맡은 이서 목사(미주비전교회)는 “임직자들에게 타이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세워지기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의 사회는 담임 최혁 목사가 맡았고 대표기도는 김종욱 목사(홀리랜드성경연구소), 축도는 김재문 목사(사랑의빛선교회 원로)가 맡았다. 빅터 박 기자

외적 역사가 나타난다”며 “은사를 받으면 성도들이 탈라진다”고 했다.

한편, 장향희 목사 집회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휴스턴한인중앙장로교회(이재호 목사)에서 또 한차례 열렸다.

정한나 기자

LA언약교회 4명의 임직자 세위



LA언약교회가 장로와 권사 등 교회의 일꾼들을 세웠다.

LA언약교회가 장로 장립 및 권사 취임예배를 29일 오후 2시에 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이날 이우진 장로가 장립, 문선자·박성숙·유연희 권사가 취임했다.

고귀남 담임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기도 정감식 목사(미주서부총회 증경총회장), 성경봉독 소상낙 장로, 말씀선포 신상원 목사(미주서부노회 노회장), 장로 장립 및 권사 취임, 권면 박재용 목사(미주서부노회 증경노회장), 축사 임영호 목사(미주서부노회 부서기), 답사 이우진 장로, 축도 박재용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권면을 한 박재용 목사는 “주께

서 우리를 위해서 발을 씻기신 섬김의 모습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에 힘쓰는 임직자들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답사를 한 이우진 장로는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며 “우리를 위해 낮아지고 섬기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일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길 노력하겠다”고 했다.

LA언약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기준이 되는 교회를 표어로 하고 있다. 문의: 213-820-0003

토마스 맹 기자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 학생 모집

(2012년도 가을학기)

뉴올리언즈 침례신학 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2학년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1. 지원 자격
 - M.Div. (목회학 석사) 혹은 이와 동등한 학위 소지자
 - M.Div. 취득후 3년 이상의 사역 경험
 - M.Div. 과정GPA 4.0만점에 3.0이상의 평균학점
2. 제출 서류 및 마감일
 - 제출서류: 입학 원서 패키지는 아래 전화 및 이메일로 요청시 이메일로 발송
 - 마감일: 2012년 7월 5일
 - 입학 서류 심사 결과는 개별통지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3. 입학안내
 - 유학생에게 1-20발급
 - Toefl 불필요
 - 모든 세미나 및 워크샵은 아틀란타에서 진행
4. 프로그램 구성
 - 워크샵 (3과목 6학점)
 - 세미나 (6과목 18학점)
 - 졸업논문 (6학점)
5. 입학문의
 - 목회학 박사과정 Director (이종길 교수): 셀폰 (404)335-8150, 이메일 jglee@nobts.edu
 - 한국에서 연락처 070-8245-8210
 - 웹사이트: <http://www.nobts.edu/CME/korean-d.-min.html>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고린도전서 4:1-5

장재효
서울 성은교회 목사



고전 4: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3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4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돈도 많고 또 무역이 성행하는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온갖 미신 우상 섬기는 일이 많은 곳이었습니.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영적 신앙의 믿음을 가꾸지는 못하고 인간의 법세를 풍기는 자기주장만을 펼치는 곳이었습니.

이런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상당히 빈약한 곳이었습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1-3에 "형제들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짓토록 먹고 밭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나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했습니.

1.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회는 죄인이 들어와서 진리와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나 하는 소망을 목적으로 성령계 이끌리며 쓰임받기 힘써야 하는 곳인데 사람이 사람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 분위기를 잘못 만들어 가고 있음을 꾸짖습니.

본문 1절에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고 했습니. 우리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를 통칭한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로만 알아야지 우리를 앞세워서 어떤 출세를 한다거나 교회에서 상당히 행세하는 권력을 장악 한다거나 하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

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바나바나 베드로가 다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하늘나라 가게 하는 목적으로만 힘써야지 자기 이름으로 모이는 그룹을 만들거나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거나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입니.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보면 忠誠(충성), 즉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정성으로 하는 것입니. 전혀 거짓이 없이 내 마음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충성입니.

그리고 3-5절을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비판하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 잘해도 잘못해도 사람들의 사고 방식의 기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이야기 합니.

이것은 판단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아볼로와 그리고 게바파도 있다 보니까 게바파나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분위기를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바울을 나쁘게 말하고 불신하도록 이간질하고 선동하였습니. 이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

2.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우리는 판단의 기준을 3가지로 생각해 봐야 됩니.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입니. 그런데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이성입니.

그러나 다른 사람의 판단을 무시해서는 안됩니. 그 말을 들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똑바로 설 수 있는 교훈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올바르게 비판, 판단할 줄 아는가입니. 사람들은 남들에게는 인색하고 자신을 두고는 무척 관대합니. 남의 눈의 티는 하나도 그냥 넘어가 주지 못하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도, 뻔 생각도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 이것은 참 어려서은 일입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받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합니. 하나님 말씀에 임각해서 성령에 이끌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마귀 앞잡이들로부터 잘 믿는 사람을 판단하고 핍박하고 행패 부리며 못살게 구는 것을 당하는 것은 영적 싸움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 그 사람은 악령의 앞잡이고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계 요긴하게 잘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악령이 사람들을 통하여 자꾸 분노하게 하며 신앙을 넘어 쓰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

이럴 때 우리는 이 이상황들을 충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공격으로 알아야 합니. 마귀가 도전해 오는 것을 물리치기 위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 마귀는 꼬투리를 잡고 나를 시험도 하고 대적도 하고 훼방도 하며, 또 자욱에 보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았을 때 전신갑주가 됩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바로 선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아직 초보인 사람을 염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할 때 받아 들여야 합니. 이것을 뿌리치는 것은 허세이고 교만입니.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

그리고 세번째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입니. 이 판단은 앞에서의 두 판단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 있는 것입니. 3-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믿어져서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고 의로워진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남들로부터 비판받을 일이 없고 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에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으로 의롭다는 자격을 얻는 것은 아릅니.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결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합니. 그렇게 결만 보고는 그 사람을 온전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 이미 이기적 사고 방식의 틀을 가진 상황에서는 그 판단이라는 것은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하고 영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날에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까지 나타내신다고 합니.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무서운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

3.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열매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직책이 있다면 그 직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참으로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 시험에 들게 비판하려 하지 말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권면하고 이끌어 주기를 힘쓰는 것이 좋습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상벌의 심판이 있게 될 때 예수님은 겉으로 행한 흔적만 보시고 판단하

서 야단치시고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지 그 깊은 마음의 뜻을 다 밝혀 내습니.

누군가가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목사님 앞으로 가져갈 때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 마치 자신이 준비한 것인양 할 때가 있습니.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조차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 하나님은 다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 그것을 준비한 마음도 수고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적 인격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습니. 껍데기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김을 다하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

그러나,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설혹 자기가 준비를 다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스스로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 이것은 더욱 성숙된 여유있는 믿음입니. 목사님을 공개하는 자리에 아직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워줌으로 그 사람이 목사님을 한 번 더 만나 신앙이 더욱 성숙할 수 있는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보시기에 정말 향기롭고 아름다운 사람입니.

하나님 앞에 땀땀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나타내기를 애쓰기보다 나를 숨기고 낮추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 이끌어 들이는 지혜는 상당히 성숙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

사도바울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판단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하는 영광에 결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수고는 했지만 공적은 그 사람에게 돌리는 지혜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 감추인 공적까지도 다 들추어서 상을 주실 때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이고 진짜 믿어서 사는 신앙입니.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토요일
KTN.DIGITAL TV	미서부 주일 새벽 5시 30분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성은교회 담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교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담임목사 청빙

Albany, NY에 위치한 올바니 한인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초청합니다. 본 교회는 PC USA에 소속된 교회이며, 자체성전을 가진 41년된 교회입니다.

가. 자격

1. PC USA에 소속 또는 가입요건이 되시는 분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한국 또는 미국내 신학교에서 안수를 받으신 분
3. 2년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4.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
5. 한국어에 능통하고, 영어구사에 불편이 없으신 분

나. 제출서류

1. 이력서 (추천인 명단 3인 이상 포함)
2. 자기소개서 (목회비전 및 신앙간증 포함)
3. 가족소개서 (가족사진첨부)
4. 최종학교 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사본 각1부
5. 설교 테이프 또는 영상설교 (가능하면 설교원고 첨부)

다. 서류마감: 2012년 6월 15일

라. 서류제출처: 이메일접수 및 일반우편접수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1. 이메일: kpcalbanync@gmail.com
2. 일반우편: Nam Soo Lee
23 Lincoln Mall
Schenectady, NY 12309
3. 문의사항: 이남수 장로 (518) 345-4887 또는 namsoo1212@gmail.com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교회에 대한 안내는 교회 웹사이트, www.kpcalbany.org에서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사업체 비영리단체 설립 해산 및 장부정리(Quickbook)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방법
- 신용카드 빚, 부동산관련 세금문제해결(1099-C)
- 저소득층 세금환급(EITC)
- Payroll & Sales Tax 보고(Paycheck service)
- IRS, SBOE, EDD, FTB 세금문제해결(Levy & OIC)
- ITIN(개인 납세번호)신청 및 공증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이정은 CPA

Tel (213)387-2004

Email상담환영 : chungleecpa@hotmail.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예배음악 중요성 인정하지만 현실은?

준비된 사역자와 전문성 필요해

→ 1면에 이어 계속
음악 본질에 대한 이해 선행돼야

이어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진정우 박사는 클래식 음악의 관점에서 음악의 본질을 고찰하고 예배음악인이 가져야 할 자세 등을 모색했다.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진 박사는 UCLA에서 Ph.D.를 취득한 뒤 UCLA 및 칼폴리 포모나 교수를 역임했으며 전미저작권협회와 전미음반예술가카데미의 작곡상을 받은 바 있다.

진 박사는 "미국교회에 비해 한국교회의 경우, 예배음악인들의 음악적 배경 부족으로 인해 화성이 조잡하거나 음이 단순한 곡들이 비교적 많다"며 "그러다 보니 자칫 자기만족에 빠지기 쉽고, 경건성을 지녀야 할 교회음악이 마치 유행가처럼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악기를 다루거나 찬양을 부를 때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음악인지,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음악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진 박사는 "경건성 등을 바탕으로 하는 예배음악의 본질에서 멀어지면 안된다"며 "예배음악인들의 음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리의 공감성 지닌 예배음악 만들어야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정종원 목사는 현대음악의 관점에서 현대음악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정 목사는 풀러신학대학원을 거쳐 현재 윌리엄캐리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김은철 박사 진정우 박사 정종원 목사

고 있으며 찬양사역자로서 '임마누엘성단', '꿈이 있는 자유' 등에서 활약하면서 많은 경배찬양 곡을 쓰고 앨범을 냈으며 동양선교회 열린예배 등에서 찬양을 인도한 바 있다.

정 목사는 먼저 예배신학 정립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그는 "예배관과 음악관에 따라 예배 환경은 좌우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배음악에서 빈약한 은혜관, 구원관이 드러나고 있다.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깔린 노래들을 보게 된다. 가짜 회심자를 만들고 만족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반드시 불신앙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다"면서 예배신학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는 교회 예배음악이 세대를 제대로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예배의 전문성을 지닌 음악사역자들이 부족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밖에 예배음악이 상업주의의 유혹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덧붙여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예배음악을 위해 준비된 사역자를 배출해야 한다 >예배음악에 대한 의식이 고취돼야 한다 >예배음악이 전문화되고, 대중화, 국제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예배음악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회중들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단순하면서도 특징있는 음악적 양식들이 개발돼야 하며, 곡의 해석과 곡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목사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찬양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함당한 찬양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므로 예배음악에 대한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배음악에 대한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뤄져 회중들의 의식이 바뀌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발제를 마무리했다.

정한나 기자

기업의 마케팅, 교회에 적용한다면

나사렛성결회총연합회 목회자 세미나 개최

미주한인나사렛성결회총연합회(회장 김성대 목사)가 찬양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동안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의 윤강현 교수는 '성경적 마케팅의 삶'이란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윤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다양한 마케팅 요법을 예로 드는 동시에, 목회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에서의 마케팅 요법이 교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활발한 대화를 나눴다. 그는 "우리가 제품을 고를 때 품질과 가격, 디자인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듯이 교회를 선택할 때의 과정도 비슷하다"며 "이런 마케팅적인 요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자유의지를 어떻게 선하게 쓸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목회의 중요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에서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는 윤 교수가 교회에 도입되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 목회자들에게 강의하고 있다.

남가주가스펠교회에서 목회자 2명 안수식



남가주가스펠교회에서 거행된 목사안수식의 순서자들. 가운데 두명이 안수받은 백기봉, 다니엘 민 목사.

"한 영혼 귀히 여기는 목회자 되라" 권면

최근 남침례회 소속 남가주가스펠교회(이승필 목사)에서 백기봉, 다니엘 민 전도사를 목사로 세우는 안수식이 거행됐다.

설교는 남가주가스펠교회 원로인 신동호 목사가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신 목사는 "예수님처럼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목회자가 되라"고 강조했다.

김송식 목사는 "큰 교회를 지향하기 보다 한 영혼을 귀히 생각하는 목회를 하라"고 권면했고 성백송 목사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그것을 참음으로 은혜의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머미션의 디렉터 도일 브래튼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이를 통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당부했다.

예배의 대표 기도는 샘 리 목사가 맡았고 사회는 이승필 목사가 맡았다. 최

수영 선교 목사가 시취보고를, 중국선교사 이기철 목사가 서약 순서를, 미라클랜드침례교회의 이상래 목사가 대표기도를 맡았다.

축가는 백기봉 목사의 모교인 남침례신학대학원 학생들이 맡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불렀다.

백기봉 목사는 대전침례신학대를 졸업하고 이 학교에서 목회대학원 과정을 수료했다. 남침례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샘물침례교회 전도사, 예광장교회 전도사로 섬긴 후, 남가주가스펠교회에서 4년간 전도사로 헌신해 왔다.

다니엘 민 목사는 바이올리대학교에서 성경과 신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고 탈봇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 역시 남가주가스펠교회에서 4년간 중고등부와 EM협력 전도사를 맡아 왔다.

빅터 박 기자

칼빈성서신학대 제22회 학위수여식

믿음으로 승리하라

칼빈성서신학대학(김복진 총장)이 28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중앙루터교회에서 제22회 학위수여식을 갖고 2012년도 졸업생을 배출했다.

김명도 교수(대학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학위수여식에서 박상목 교수의 성서, 김정복 교수의 기도, 최희규 교수의 성경봉독, 신기준 학생회장의 찬양 후 이창배 교수가 "말씀 사역자의 자세"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어 김진수 학장의 학위 수여와 권면 후, 김복진 총장이 축도했다.

이창배 교수는 "칼빈성서신학대학을 졸업한 신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의 현장이 되길 바란다"며 굳센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길 당부했다.



칼빈성서신학대학이 중앙루터교회에서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명(신기준, 최영하)과 석사 8명(김순희, 김에자, 김제인, 김좌일, 송덕인, 안성은, 안응길, 조정화) 등 총 10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칼빈의 신학사상에 기초, 개혁신학을 이어가는 칼빈성서신학대학은 1989년에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국 BPPVE 인가를 받았으며, 개교 이래 미주 한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다수 양성해 왔다. 현재 14명의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

입학원서는 수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학기제와 쿼터제로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 입학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calvinbiblecs.org 또는 전화 213-389-8987로 문의하면 된다.

정한나 기자

www.igmc.org
글로벌선교교회

LA 통일(북한)선교대학

2012 봄학기 학생모집

통일(북한)선교대학은 세계선교와 북한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방향, 효과적인 사역의 방법들을 제시하여 선교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선교현장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부여합니다. LA 통일(북한)선교대학에서 2012년 봄학기 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1. 교육과정** 수업은 1년 2학기제, 1학기에 10주 북한선교 집중강의 북한선교 포럼, *통신강좌 가능(강의노트 및 강의CD 발송)
- 2. 학기일정** 5월 10일(목) - 7월 12일(목)
1)출석 수업: 목요일 저녁 클래스 (저녁8시-10시30분)
2)통신 수업: 강의노트 및 강의CD 발송 / 리포트 제출
- 3. 강의장소** 글로벌선교교회(담임김지성목사) 그레이스룸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 909-630-8722)
- 4. 강의내용** 선교학, 북한의 실상, 북한교회사, 미국/한국의 대북정책, 통일비전, 북한선교 현장(구호, 의료, 교육, 비즈니스 사역 등등), 자유북한인 각종 등등
- 5. 학비/특전** 한학기에 \$100 (탈북자, 조선족은 학비면제) 기타 비용은 학교 부담
수료후 북한 방문과 중국 사역현장 참관 가능
- 6. 입학/원서** 북한선교와 세계선교에 관심자면 누구나 환영
제출서류: 입학원서1통(www.igmc.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진 1매, 신앙간증문(구원간증/북한선교에 대한 비전 포함)
- 7. 등록문의** 구동림목사: 909)396-4441, dongripku@hotmail.com, www.igmc.org
조영길장로: 626)715-9657 / 박남수장로: 213)247-9116 / 김상우목사: 213)965-4002
- 8. 교수진** 김자성목사(LA통일선교대학학장), 김대평목사(바위선교회), 김철용선교사(바울선교회), 김인수총장(전 미주장신총장), 임운택교수(윌리엄캐리대학), 이광길교수(풀러신학교), 양영식박사(전통일부처관), 배기찬교수(전대통령동맹비서관), 허로영박사(통일연구원학장), 전영일박사(국제전략학회연구), 이우용목사(미주동북아문화협력재단), 임현수목사(토론토로빈슨교회), 고송희목사(아름다운교회), 양피터목사(FOC), 조기연목사(한기총교육장), 김정현선교사(SON미니스트리), 김상우목사(유니온선교회), 서울박사(전국정원차장), 김병로박사(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캔안선교사(GMIT), 이석목사(모퉁이통일선교회), 이재환선교사(Come미션), 박신욱선교사(SEED선교회), 문정임목사(빛나라교회), 성현경목사(파사디나장로교회), 2세 사역자, 자유북한인 등등
* 그동안 강의하신 분들중 일부입니다.

L.A. 통일(북한)선교대학

학장: 김자성목사, 학감: 김상우목사, 이사장: 조영길장로 ☎ 909.396.4441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www.MARsLED.net

요한복음 3:16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주차장



빌딩



학교



쇼핑센터



소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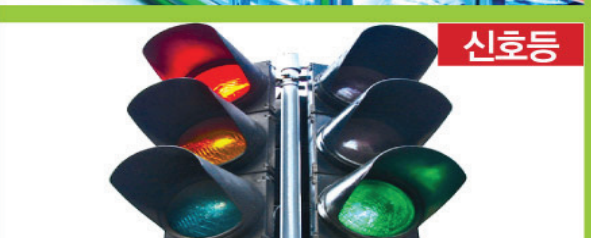
자동차, 딜러



가로등



마켓



신호등



주유소



일반주택

LED Professional Manufacturer
Lexell by Mars LEDs, Inc.는
7만 5천여명이 일하는 세계 최대의 LED 종합전자회사입니다.
한국인의 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더 큰 미래를 약속드립니다.

전기 사용료 50% 이상 절감!

2013년 6월부터 법으로 커머셜빌딩은 LED Light로 교체해야합니다!

사장님은 어떤 LED를 선택하시겠습니까?

- 일반 Store에서 구입하여 Warranty없이 LED를 설치하여 사용하시겠습니까?
- 일반 유통업자(Distributor)에게 설치 의뢰하여, 보증 받지 못한 LED를 위험을 감수하며 사용하시겠습니까?
- 저희 Lexell by Mars LEDs는 자체 제조, 제작 및 5년 Warranty를 해드리며, 최고급 LED로 Lifetime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빛내드릴 것입니다.

LEXELL by
MARs LEDs, INC.

바꿔주세요!

불경기를 이겨내자! 지금 내고 계시는 전기 사용료의 50%이상 절감됩니다. 한 번 교체 하시면 20년 이상은 거뜬합니다.



일반전구를 LED전구로 바꿔야 하는 중요한 이유!

CFL(형광등전구) 및 백열전구의 유해성
수은과 납 성분이 들어있다
유해 전자파를 방출한다, 고열 및 화재의 위험

Vs

LED의 환경친화적 특성
무수은 광원(RoHS Free), CO2, NO2, SO2 배출량 감소
유해전자파 미방출, 저전압 사용에 따른 사고 안전성

Lexell by Mars LEDs, Inc. Benefit

5년간 회사 Warranty! 설치후 문제가 있으면 100% 환불 또는 완벽수리!

Save
money

교회, 학교, 빌딩, 상가, 주택, 자동차, 가로등
신호등, 창고, 주차장, 소름, 주유소, 마켓 등



각 교회마다 전기를 많이 쓰시죠? 교회건물은 원가로 해드립니다.

세계 최대의 LED 전구 회사 LEXELL by Mars LEDs 지사모집

저희 LEXELL by Mars LEDs는 LED Manufacture 회사로서 모든 LED 전구를 직접 연구, 디자인 및 제조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LED 전구, 칩 제조 회사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문제인 에너지 고갈로 인해 미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전기 사용료를 50%-80% 이상 절감 할 수 있는 LED 전구로 교체토록 법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성공하는 사업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유가 시대 아울러 매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 불경기에 10만불 정도를 투자하여 과연 어떤 사업을 하실 수 있으겠습니까? 저희 회사는 여러분의 이런 경제적 고민과 불안을 해소 하실 수 있도록 사업의 기회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각주 및 각 나라 등지에 지사 에이전트를 모집 중입니다. 미국 내에만 100개지사 모집 중이며 이미 28개의 지사가 고효율의 매출을 올리며 성장 중에 영업중입니다. 10만불의 투자로 한달에 10만불 이상의 고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전기 관련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도 아주 쉽게 운영 하실 수 있도록 본사가 최대한 지원하며 힘을 실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지사 창립에 필요한 금액
총 \$100,000

- 1. \$20,000 - 광고비용
- 2. \$30,000 - 초도 물량 구입비용
- 3. \$50,000 - 지사 로열티

LEXELL by
MARs LEDs, INC.

611 S. Catalina St. #207 Los Angeles, CA 90005

e-mail: LEDlightGO@hotmail.com | www.MARsLED.net

C.E.O. President: Michael Kim(김신형), Cell: (424) 241 - 8281

Tel. 213-427-9848 Fax. 213-427-9248

세상 주름잡던 그 목소리, 주님을 찬양하다

가요계 스타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변신

60년대 가요계 스타로서 인기를 누리다 급작스레 도미한 후 미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체험을 한 가수 서양훈, 벌써 50년 전이다. 이제 LA 한인에게 가수 서양훈보다는 장로 서양훈이 더 익숙할 수 밖에 없는 세월이 흐른 것이다.

현재 그는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의 장로이면서 성가대원이다. 미주 프레스디아스 강사이며 미주복음방송 방송위원이다. 세상을 주름잡던 그 목소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송인의 목소리로 변했다. 그는 말한다. "믿는 사람에겐 은퇴가 없다"라고.

-60년대 한참 잘 나가던 시절 이야기도 한번 들려 주십시오.

블루벨즈는 1958년에 바리톤

인 저와 베이스 현양 씨, 하이테너 김전약 씨, 멜로디 박일호 씨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에 LP 음반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도 음반 활동과 방송 활동을 통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 서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노래했으며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 CM송 등에서 큰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즐거운 잔칫날', '고생도 달가와' 등이 대표적 곡이었죠.

당시 KBS나 MBC, 동양방송, 동아방송에 빠짐없이 초대되며 인기가 올라갔고 '웃으면 복이와요', 'OB카니발' 등 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삶은 교회와는 거리가 있었겠군요.

사실 기독교방송국에도 자주

출연해 찬양을 불렀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낮에는 찬양, 밤에는 술집에서 노래를 불렀으니까요.

-이민이 교회와 인연을 맺은 결정적 계기였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아내의 끊임없는 설득으로 1978년 도미했고 은혜한인교회의 초청기 멤버로 시작해 현재까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민 전, 저는 일본 등 해외에서 순회공연을 많이 했고 아내는 광화문에서 약국을 운영했죠. 아내의 7년에 걸친 설득 끝에 저는 연예계 생활을 접고 도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와 보니 한국에서 갑자기 사라졌던 사람들이 다 있었



60년대 가요계의 대명사 블루벨즈의 서양훈 장로.

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또 한국에서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1982년 은혜한인교회 창립예배에서 안수기도를 받은 후 1시간동안 혼수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왑밋, 선물 가게, 부동산, 식당 등 사업을 하다 1994년부터는 제 전공분야라 할 수 있는 방송을 하게 됐죠. 이제 세상 방송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미주복음방송에서 '주님의 동산', '교회 탐방', '웃음의 광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진

행하며 감동적인 사연과 간증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현재도 방송위원과 홍보위원을 맡아 미주복음방송의 한 식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뒤집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릴 수 밖에요.

-현재까지 해 오신 일에 더해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힘이 닿는 한 성가대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제가 맡고 있는 프레스디아스 사역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미주복음방송의 300인 기드온실업인 후원회, 3만인 일반 후원회원 모집에 더욱 노력해 복음전파에 앞장서려 합니다.

믿는 사람에겐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그 사랑과 은혜를 노래할 겁니다.

빅터 박 기자

이민가정의 애환 담은 드라마 <거울> 무대에 올려져

독거노인 후원 위해... 효사랑선교회 주최



드라마 <거울>이 나성영락교회에서 그 막을 올렸다.

이민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족간의 갈등과 회복 이야기를 속도감 있는 모노드라마로 각색한, 극단

TAL(김영란 연출가)의 <거울>이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28일 나성영락교회에서다.

이날 무대는 '성경적 효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효사랑선교회(김영란 목사)와 예술을 통한 전인치유 사역을 해 온 로템연구소(양영준 소장)의 주최로 독거노인 후원을 위해 마련됐다.

로템연구소에서 연출한 드라마 <거울>은 현 이민가정에서의 가족 구성간의 상처와 아픔을 제3자의 시각으로 바라보아 갈등을 서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가정 회복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드라마 치유사역의 창작 작품이다.

드라마 <거울>의 스토리는, 1장 그날 '어느 엄마와 딸의 주일 아

침', 2장 대화 '우리들의 전쟁', 3장 그림자 '갈린 자의 외침', 4장 고백 '착한 누나', 5장 모습 '어머니의 눈물', 6장 소식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연에서도 배우들의 혼신을 쏟는 연기가 단연 돋보여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또한 이중언어 대사로 진행돼 1세와 2세가 함께 관람 가능한 매력적인 공연이기도 했다.

이 <거울> 공연은 오는 5월 9일 오후 7시 30분 열마인침례교회에서 또 한차례 무대에 올려질 예정이다.

정하나 기자

세계여교역자 선교대회 열려

다양한 강의와 휴식으로 영성 재충전의 시간 마련



여성 교계지도자 1백여명이 LA에서 선교대회를 열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의 여성 목회자, 여성교사, 여성 교계지도자 등 1백여명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민족간의 평화, 사랑과 평화의 노래'라는 주제로 제7회 세계여교역자 선교대회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국제여교역자협의회(대표회장 박금순 목사)와 미주기독교방송(대표 남철우 목사)이 주최한 이번 대회의 세미나 강사는 '제자 임니까'라는 저서로 잘 알려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박사를 비롯해

미주기독교방송 남철우 목사의 국내외 목회자 10여명이 맡았다.

선교대회 기간 중 사라코러스(단장 백사라 목사), 전예성 예술팀, 예빛선교단의 공연과 공중전통 패션쇼가 펼쳐져 큰 박수와 감동을 선사했다.

국제여교역자협의회는 그동안 싱가포르, 마카오, 서울, 필리핀, 이란, 하와이 등지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했으며 차기 대회는 2014년 프랑스 파리로 결정됐다.

빅터 박 기자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갈릴리신학대학 & 랭귀지스쿨

GALILEE SCHOOL OF THEOLOGY & LANGUAGE SCHOOL

목회학석사 (M.Div.) 신학석사 (S.T.M.)
목회학박사 (D.Min.) 신학박사 (S.T.D.)

SEVIS인가 대학, 자체 I-20발행
ESL 프로그램 (음성학적 영어학습방법론을 개발)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BAK KUNG 白 宮 KOREAN B.B.Q

백궁은 최상급의 고기와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런치 스페셜 \$9.99	매운 소갈비찜 +된장	고등어+된장 이면수+된장 잡채+된장	오징어+된장 김치전골	갈비탕 육계장 내장탕	콩비지찌개 비빔밥+된장	돌솥비빔밥+된장
고기무제한 All You Can Eat \$9.99	Lunch Only 11am-5pm		A \$9.99	B \$13.99	C \$16.99	D \$22.99
	차돌 소스삼겹살 소불고기 닭불고기 매운양념닭갈비 오징어 찞不理		오징어 찞不理 곱창 대창 막창 닭뎡통	B+ 돼지불살구이 L양념갈비 L생갈비 허밀구이 왕새우구이(2인/10pcs) 스키구이(힘줄)	C+ 꽃살(2인/10pcs) 양념양갈비 왕갈비 양갈비구이	

소주 소주1병 \$6.99

3700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19
323.734.9292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a.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 Fax: 310-793-2297 / www.cohenuniversity.ac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 818-435-2441 /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Solomon University, SU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 (BA, D.Min,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총장: 백지영 목사 부총장: Dr. Brent Price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 Fax: 213-487-737 / www.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

국제비전대학교
 정시/수시: (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 Min., D.Miss., Ph. D.)
 I-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 213-610-4989 / www.vision.edu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화 목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 Fax: 310-609-141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9-8987

미주개혁신학대학교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2706 Wilshire Blv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 reformeduniv.org

아메리칸 신학대학 및 대학원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7356 / Fax: 818-773-8868 / 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하나님 앞에 섰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Tel: 562-869-7497 / www.mcniversity.org

바울성경대학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Tel: 562-394-3342 / paulbiblecollege@gmail.com

윌클리프대학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는 개혁적인 신앙과 바른 성서해석을 가르쳐 여두움을 밝히는 지도자, 개혁의 새벽별 존 윌클리프 같은 개혁자를 길러낼 것입니다

14631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4
 Tel: 562-777-7078 / www.wyclifuniversity.net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i.org

Solution for Tomorrow

LASERVISION WORLD
 www.laservisionworld.com

무료 음향 영상 조명 컨설팅 및 System Check-up
 문의 323.730.5050

Blackmagic Cinema Camera
 Featuring a wide 13 stops dynamic range, 2.5K resolution, EF & ZE lens compatibility, SSD recorder, RAW, ProRes and DNxHDi
 \$2,995 Body +Lens(Optional)

ATEM Television Studio
 \$995

SONY NEX-VG20H
 \$2,199

Blackmagicdesign | **vimeo** | **USTREAM**

저렴한 비용에 고품질 HD급 예매 중계 시스템을 설치 하실수 있습니다. ATEM Television Studio 하나로 고품질 영상 녹화뿐만 아니라 실시간 인터넷 중계까지 All in one System 을 구축해 드립니다.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wori.com / 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EM)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 (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장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성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라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아인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제자기도회 오후 7:30 **김재을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자녀기도회 오후 7:00 (말-목)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
청년·대학부 주일예배후

나성소망교회
제자사역, 건강한중령교회, 행복한가정

4063 Ingraham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550-7377 / lahope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살려주는 은혜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김성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목) 2부 오전 6:30 (말-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사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약속하시는 교회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rdm.org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박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EM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6:30 (토)
유치, 유년부, 중고등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김승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마리 김 선교사**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금요일 오후 7:30

뉴월드임마누엘교회

1234 W. 7th St., Los Angeles, CA 90017
T. (909) 993-4842, (909) 993-2157

1부예배 오전 8:00 한이청년부예배 오후 1:00 **최성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EM/Youth예배 오후 12:00 오전 6:00(토)
AWANA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매월 마지막주)

늘푸른선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 92806
T. (714) 632-9191, 9192 / missionway.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45 2부예배(EM)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8:00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기도회 오후 8:00
중·고등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청년토요예배 오후 6:00

둘로스교회
예수님의 자비와 주님과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uschurch.com

1부예배 오전 6:00 EM예배 오전 9:3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만음교회
백전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사망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회예배 오후 12:00

벤처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한국어 학교 오전 9:30 (토)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15617 Burwood Rd., Victorville, CA 92394
T. (760) 220-3263, (760) 542-9366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행과 구제의 삶으로 실현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8:0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무의 가치를 보나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 F. (310) 793-2298

1부예배 오전 7:30 5부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2:15
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12:15 새벽예배 오전 5:45 (말-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세상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860-5451 / iloveccp.org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다운타운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박상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시온성중양교회
은혜, 사랑, 선교로 복음의 빛을 비추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EM예배 오전 10:00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1부예배 오전 8:00 **김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토)
수요일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친. 초 정신의 호를, 바른교회인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말의 침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성현경 담임목사**
스페인어 예배 오전 10:00 오후 6:0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힐로우힐) 수요일 오후 7:45
오후 12:00 (분당)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아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오전 5:25(말-금)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새벽연합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386-2233 / F. (213) 386-2243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자 **박세록 대표**
www.samcare.org

SAM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美 목사 또 코란 소각...세계 교계 강력 규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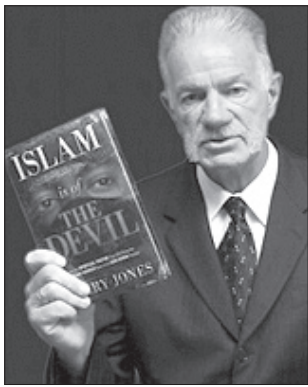
“반종교적이며 이슬람권 기독교인에 위협”

전세계에서 물의를 빚어 온 미국의 극단주의 목회자인 테리 존스(Terrence Jones) 목사가 또다시 코란을 불태워 미국과 세계 교계의 비판에 직면했다.

존스 목사는 이번에는 이란 정부가 현지인인 유세프 나다르카니(Nadarkhani) 목사를 구금하고 있는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지난 4월 28일 오후 자신이 이끄는 단체 도브 월드 아웃리치 센터(Dove World Outreach Center, 플로리다 주 게인스빌 소재) 앞에서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코란과 마호메트의 초상을 소각했다. 이 행사는 인터넷으로 생방송됐다.

앞서 미 정부와 전미복음주의 협회(NAE), 세계복음연맹(WEA)의 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존스 목사는 코란 소각을 감행했다.

그는 지난 2010년에는 미국의 9.11 테러 10주년을 맞아 코란을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미 정부와 복음주의 교계의 반대가 거세지자 다시는 코란을 불태우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작년 3월 이를 어기



테리 존스 목사, 저서인 '이슬람은 악마의 종교'(Islam is of the Devil)를 손에 들고 있다. ©Dove World Outreach Center

고 자신의 교회 안에서 '코란 재판식'을 열어 이슬람 책자들을 불태웠다. 존스 목사가 코란 소각을 감행할 때마다 전 세계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폭력을 동반한 반기독교·반미 시위가 일어나 현지 기독교인들은 물론 서구 기관과 단체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지난해 3월 코란 재판식 이후에는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 공격 당한 10여명의 UN 사무소 직원들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초래됐다.

미국과 세계 복음주의 교계는 존스 목사와 그 추종자들의 코란 소각 행위가 기독교의 정신과는 동떨어진 타종교에 대한 모독 행위인 것은 물론, 이슬람 국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위협을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전미복음주의협회(NAE) 리스 앤더슨(Anderson) 회장은 “이같은 행동을 취한 이들은 (기독교인 중) 그 누구도 대표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존중과 사랑의 종교다”라며 “이들은 정교적으로 기독교인, 무슬림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격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스 목사에게 계획을 철회하고 세계 교계의 뜻을 따라줄 것을 개인적 면담을 통해 권고해 왔던 세계복음연맹(WEA)의 제프 터니클리프(Jeff Tunnicliffe) 국제총재 역시 단호한 비판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어느 종교든 성전의 소각은 그릇되고 부당한 행위이며 코란 소각은 특히 무슬림들에게는 비탄할 만한 것으로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존스 목사는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이가 아니며 그는 모두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점을 세계의 이슬람 지도자들이 이해하길 바란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되는 일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코란 소각으로 인해 이슬람 국가들에서 또다시 폭력 시위가 확산, 인명피해가 촉발되는 데 대한 우려의 표시로 보인다.

한편, 존스 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거듭되는 코란 소각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며, 이는 “지난 1,400여년간 이슬람이 가해 온 기독교인들과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동성애자들,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박해에 대항하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이란 정부의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 구금을 비난했다. 나다르카니 목사는 2009년 10월 기독교 신앙과 개종 조장을 이유로 체포돼 계속 구금된 상태이며, 전 세계 교계에서 석방을 위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손현정 기자

교세 줄어드니 동성애 허용?

UMC 타협 움직임

찬반 대립 치열... 지역교회 판단에 맡기자는 의견도

연합감리교단(UMC) 총회가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플로리다 주 탬파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동성애자 성직자 안수를 인정하자는 타협 움직임이 일고 있어 우려된다. 특히 “계속 줄어드는 교인수에 대한 대책으로 동성애 성직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논쟁은 UMC 내에서도 40여년간 계속돼 왔으며, 올해 총회에서는 관련 청원서가 70여개나 접수됐다.

UMC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전통 결혼을 수호하고 목회자의 경우 성스럽고 엄격하게 생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 정관에 따르면 “동성애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공존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동성애자로 공언하는 이에게는 목회자 후보 자격이나 안수 자격 및 교회 직분자 자격을 줄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교세가 약 780만명 가량 줄어든 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일각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입장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 동

성애 옹호단체에 소속된 몇몇 총대들은 “미국인들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교회가 동성애 성직자나 동성결혼을 대하는 강경한 태도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총대들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동성애와 타협한다고 해서 전도 효과를 높일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다. 오히려 ‘감리교 역사(History of Methodism)’의 저자인 러셀 리치(에모리신학대학 진학장)에 따르면, UMC는 다소 자유주의적인 서부와 동부 지역은 급속히 교인이 줄어드는 데 반해 남부 바이블벨트를 중심으로는 교인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일부 총대들은 양측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UMC가 동성결혼 인정 여부를 각 지역교회 관할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에 사는 목회자들은 주례를 서도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교단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결혼 주례를 서지 말라는 타협안이다. 4년에 한번씩 열리는 총회에 는 올해 약 1,000여명 총대가 참석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 동

권나라 기자

교회 방문자 30초 안에 못 잡으면 떠난다

교회에 처음 출석한 방문자들을 효과적으로 정착시키는 방문자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교회성장연구소가 26일 경기도 부천시 빛교회에서 ‘방문자 정착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강사로는 ‘이 말을 전하라’, ‘3분 만의 전도편지’, ‘3R 혁명’, ‘왕의 아이들’의 저자인 황인철 목사가 나섰다.

그는 “목회자의 설교가 교회 정착에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방문자들은 목회

자의 설교를 바람직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장기적으로 교회 출석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단연 설교가 으뜸이겠지만, 설교가 방문자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황 목사는 “방문자는 30초 안에 그 교회에 정착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며 “교회에 대한 첫 인상, 첫 느낌이 매우 중요하다. 30초란 방문자가 교회에 왔

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의미한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안내자가 좋은 영향을 미치면 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 방문자 안내자의 얼굴에서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교인들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자와 접촉하기 위해 삼시때기하는, ‘만남 대기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만남 대기

조는 모든 방문자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그들의 영적 필요를 이해하며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다. 방문자 중에는 적극 활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등록을 꺼리며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안에도 교인으로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만

신태진 기자

교회 바자회 마켓 반찬 취급 하시는 분 하숙 하시는 분 (도매가에 드립니다)

* 플라스틱 그릇 무료 제공합니다.

취급 품목			
오징어젓	고추전어	연근조림	명란젓
어리굴젓	양념게장	우렁된장	창란젓
가리비젓	양념갯잎	냉이된장	낙지젓
황새기젓	간장갯잎	간장고추	조개젓
더덕무침	된장갯잎	된장고추	갈치젓
파래무침	고추알무침	마늘뽕무침	
무말랭이	장어구이포		

3109 W.Olympic Blvd., #D Los Angeles, CA 90006

서광식품
(213)268-7004

당뇨, 고혈압, 고지혈, 부인병 및 힘든 질병에서 빠르게 증상 개선시키는 청 한의원

대단히 놀랍고도 빠른 효능의 특수침술, 특수진맥

이번주 강의: 당뇨, 고혈압의 합병증에서 빠르게 대처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심각하고도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초기에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에만 의존하다 눈이 안보이거나 신장투석 다리절단과사, 심장병, 뇌경색 중풍 치매등으로 고생하다 무척 힘들게 되는데 어느정도 약을 줄이거나 벗어나야합니다. 왜냐하면 약은 빠른 증상 개선으로는 좋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몸의 중요장기인 뇌, 눈, 심장, 신장 및 손, 발 등 중요한 부분의 파손환이 안좋아져 무섭게 망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나이가 40살 정도인데 당뇨가 생긴지 2년정도인데도 눈이 안보여서 본원에서 치료 3개월후 눈이 어느정도 보이게 됐고 당뇨수치가 어느정도 잡혀서 안도의 숨을 쉬지만 당뇨 합병증을 생각보다 무척 힘들고 그 고통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본원에서는 자연의 요법으로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서 수치가 어느정도 정상이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당뇨 고혈압은 평생토록 관리 조절을 잘해야합니다. 재발할수있기 때문에 완치는 안되지만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야 그리고 줄여서 합병증에서 벗어나야합니다. 본 한의원에서는 특수침술과 특수침술을 통해서 오래된 통증을 민감함 정도로 빠르게 수 분 정도에도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됩니다. 아울러 약해진 장기의 균형을 도와주어 합병증 및 통증에서 벗어나게끔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도와드립니다. 올바른 가르침, 준비된 생활로 건강도 올바르게 서 있어야합니다.

청 한의원의 상상하기도 현실의 세계에서 믿기 어려운 빠른효과의 특수침술은 과연 무엇인가..

- 1.예) 70대 바라보는 LA인근에 사시는 김 선생은 허리통증으로 너무나 아파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본원에 와서 침을 맞은지 불과 2~3분도 채 안되어 그 즉시 그 괴로운 통증이 사라지니 정말 믿을수가 없다. 신기하다,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 상황을 얘기한즉 아무도 믿기 어렵다 말한즉 3주가 지난 이후에도 통증이 없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해하는 모습이었다.
- 2.예) 50대 남성으로 오펜지카운티에 사는 강 선생은 오십견으로 팔을 들거나 움직일때 너무나 고통스러워했고 한 6개월 정도 고생으로 여러 별별치료를 다 했으나 계속 아파서 본원에 와서 치료후 5분도 안되어 그 통증이 사라지고 자유자재로 그 즉시 움직이니 현실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있나 믿기지않아했고 정말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 3.예) 70대의 할머니 엉덩이부터 땡기고 발끝까지 아파서 좌골신경통 및 알수없는 통증으로 2년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다 정말 남들이 2~3분 정도후에 통증이 사라진다는 말을 듣고 그냥 방문 그런데 5분도 안되어 그 오래된 통증이 사라지니 이것은 상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감탄하시며 뒤돌아 가면서 감사해하는 모습이었다.
- 4.예) 젊은 학생이 6개월정도전에 다리를 다쳐서 심하게 아파서 봉대를 감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온갖치료를 했으나 큰 진전이 없어 통증을 호소하는바 침을 놓은지 5분도 안되어 그 통증이 사라지고 자유자재로 무릎을 움직이니 어떻게 이런일이 이 세상에 있다니 말하면서 Amazing이란 말을 계속 연거푸 말하고 있었다.
- 5.예) 60대 후반의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배부위의 통증으로 무슨 큰병이 아닌가 걱정하면서 내원한바 침 시술후 3분도 안되어 그 통증이 사라지고 없어졌으니 남편도 지켜보면서 정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가 힘들고 상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너무나 감사해했었습니다.
- 6.예) 80대의 할머니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로 여러 알약을 복용하던 중 내원한바 본원에서 3개월 정도 치료후 모든 알약을 다 끊고도 수치가 정상이 되니 가족도 놀라와하고 병원에서 믿기 힘들다고 의아해 했다고 말하면서 그저 주위사람들이 놀랍고도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 7.예) 4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당뇨를 앓은지 2년정도인데도 눈이 안보이고 Insulin 70Unit맞으면서도 400~500정도 당수치가 나오고 몸은 너무나 말라서 보기가 힘들정도이고 발바닥은 가족처럼 찢겨져 있었고 삶을 포기한 모습으로 내원한바 본원에서 3개월 남짓 치료후 눈이 어렴풋이 보이면서 Insulin 40Unit 맞으면서도 당이 100정도 내려고 몸에 살이 붙으면서 발바닥도 보드라워져서 이 기쁨은 천하를 바꾸어도 누릴수 없는 행복이라고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의 임상사례는 개개인의 증상, 병의상태에따라 차이가있으며 통증이 사라졌다해도 다시 볼수 있으며 통증이 사라진 것이 완치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계속적 치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 고혈압은 완치가 없으며 평생동안 관리 조절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청 한의원 714 636 1412 (24hrs) 714 349 7995 | (213)385-5833
9355 Chapman Ave. #108 Garden Grove, CA 92841 | 3003 W. Olympic Bl. #201, LA, CA

특별 절호의 기회!

놀라운 당뇨 신선단 2병 시면 2병 FREE!
당뇨병에 희소식!!

왜 당뇨신선단이 좋은가?

더 자세한 사항은 www.shinsundan.com을 참조
24시간 주문전화 714.636.1412

Coupon
당뇨, 고혈압, 고지혈, 복부비만 프로그램
50% off 5/31/12까지

고향산천은 나를 반기다



현순호 목사
에버그린한인교회

하는 쟁들의 프로포즈와 상대의 응답송은 너무나 환상적이었다.

발 밑에 흐르는 물은 등산객들이 허리를 굽혀 목을 숙이게 할만큼 맑고 깨끗했다. 손님을 부른다. 까치는 연상 꼬리를 들어 울었다 내렸다. 깎깎 거리며 외국에서 온 손님을 환영해 주었다.

정어 많은 내 나라다. 처음 만날 때는 눈도 마주치지 않지만 한번 친해지면 찰떡처럼 가까워져 연인 이상으로 사랑하며 자기 간이라도 빼줄 만큼 정을 나눈다. 아무리 강박하고 이기주의에 오염된 세상이라고 해도 한국은 단연 아니다. 만나면 밥 먹고하고 하고 무엇 마시자고 하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고 떠날 때는 주머니에 용돈을 집어 넣어 주는 곳이다 한국이다.

또 이른 아침부터 밤 늦도록 생동력이 넘치는 곳이다. 출퇴근 시간은 전쟁터다. 그 많은 자가용과 만원된 전철과 버스 속 사람들 얼굴에는 무엇을 성취하려는 의욕이 넘친다. 큰 변화점은 물론 좁은 골목까지 그 무수한 사람들과 식당들, 자주 보이는 외국인 관광객들, 내은싸인의 불 빛 밑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들의 학구열은 세계 어느 나라도 못 찾아 온다.

주일 낮에, 수요일 저녁에, 새벽기도회, 구역예배, 철야기도회, 산상기도회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일이다. 기독교인들이 신우회를 조직해서 정기적으로 직장의 복음화 운동을 하는 것도 한국에만 있는 현상일 것이다.

물론 그늘진 곳도 많지만 그늘도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그래서 고향을 잊지 못하고 자주 가고 싶다. 갔다 오면 한국의 정과 부지런한 기를 받아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미국에 오래 살면서도 떠나온 고향을 그렇게도 못 잊어, 이번에 기회를 만들어 지난 3주간 동안 내가 38년 월남 후 공부하고 장가가고 아들 딸 낳고 직장 생활하던 서울을 비롯해 암으로 고생하는 친구가 있는 강원도, 신혼여행을 갔던 충청도, 음식 맛이 뛰어난 전라도의 청산도, 산세가 아름다운 강원도의 설악산, 경포대 등을 잠깐씩이라도 밟고 돌아왔다.

이번 여행에서 다시 느낀 것은 한국은 역시 아름다운 나라라는 자부심이다. 춘추추동이 확실해 춘삼월에는 강남강진 제비들을 불러 들여 작년처럼 새 집을 짓게 하고 나비와 벌은 꽃을 따라 먼 길을 오가며 자기 임무에 충실함을 보여주듯 눈요기에도 한 몫을 해 준다. 높고 낮은 언덕에는 한국의 정서가 풍기는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만발해 오래간만에 온 귀향자의 발목을 붙잡고 춤처럼 놀지를 않는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땅에서는 아지랑이가 가시면서 뒤따라 천만가지의 새싹들이 시간을 다투며 올라온다. 서민들이 좋아하는 썩, 뽕, 달래들이 무리를 지어 세상 구경에 한창이다. 연록색 새싹이 돋은 연푸른산은 맑고 깨끗한 산소를 뿜어 내어 오래간만에 신선한 산림욕을 즐길 수가 있었고 이 산 저 산에서 사랑을 구

과거는 부도수표, 미래는 약속어음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의 시간 속에 살면서도 과거와 미래가 거의 밀착된 경계선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영역은 과거와 미래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질식하기

일보적전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힘들어 하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목사를 찾아 오는 사람들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아픈 과거를 털어낼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갈망하든지, 아니면 불안한 미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도와 확신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여, 과거와 미래에 집중된 우리들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터전인 현재를 유령의 도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의 하나가 생각의 초점을 현재에 맞추는 것입니다. 1분 동안 만이라도 딴 생각을 하지 않고 현재의 일에만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시험삼아 연습해 보면 금방 자신이 얼마나 정신산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와 미래의 일을 사이를 끊임없이 오락가락하면서 소중

한 현재를 빼앗겨 버립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문득 교인들의 얼굴을 훑어보면, 정신이 이미 과거의 시간으로 출장 나가신 분들도 있고, 예배 후에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들을 미리 목상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며,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이미 깊은 동면(冬眠)에 들어간 분들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만이라도 깨어서 현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생각의 초점을 과거에 두면, 수치스럽고 짜증나는 아픈 기억들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과거에 대한 좋은 기억보다는 분노와 좌절을 야기하는 나쁜 기억들을 담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실존

적인 비애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면 좌절에 빠지고, 미래를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이미 족하다"(마태6:34). 주어진 현재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니다.

현재를 잘 살면 아름다운 과거를 가질 수 있고, 현재에 충실하면 복된 미래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는 다시 돌려 받을 수 없는 부도수표입니다. 미래는 무책임하게 발행된 약속어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오직 현재만이 과거와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있는 현금(Cash)입니다. 현금을 사랑하는 것처럼, 현재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인생 전체가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안개를 제거하라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국 최초로 도버 해협을 헤엄쳐서 횡단에 성공한 플로렌스 채드윅이라는 여인이 1952년 7월 4일, 그의 나이 36살에 또 다른 도전을 하나 시도한 적이 있었다. 캘리포니아 앞에 있는 카탈리나 섬에서부터 해안까지 헤엄쳐 횡단해 오는 일이었다.

그녀가 도착할 때쯤 되어 수많은 인파가 그의 성공을 지켜보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해안에 몰려 들었다. 그런데 그날 따라 날씨가 몹시 추웠고, 짙은 안

개가 앞을 가리고 있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플로렌스 채드윅은 안개를 헤치면서 사력을 다해 앞으로 나아갔지만, 앞은 보이지 않고 몸은 점점 더 지쳐가기를 시작했다. 끝내 그녀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옆에 따라오던 구조선에 몸을 싣고 만다.

플로렌스 채드윅은 구조선에 몸을 싣고 나서야, 자신이 불과 500미터 앞을 남겨 두고 포기했음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당신의 실패 원인이 어디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때 그녀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다.

"그것은 추위 때문도, 피곤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짙은 안개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끝낼 것임을 볼 수만 있었어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삶의 목표가 있는 자와 없는 자는 그 인생을 걸어가는 의미와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타나

기 마련이다.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는 자에게는 매 순간이 의미가 있고 열정이 생겨 난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채 그냥 상황과 여건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며 가는 자에게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세상의 안개 때문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며, 잡아야 할 방향을 잡지 못한채 간다면 늘 실패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인생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세상의 안개를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다. 생명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며, 빛이시다. 빛 되신 예수가 우리 인생에 임하시는 순간 안개는 걷히고 보이지 않던 인생의 목표가 보이게 된다.

한평생을 인생의 안개 때문에 참된 생명의 길, 참된 빛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채, 험기와

살인과 분노로 살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의 눈을 가리웠던 비늘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그의 눈을 가로막고 있었던 인생의 안개가 걷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로 그의 삶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바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에게도 소개하고 전하는 것이다.

생명의 빛을 경험한 자들은 그 빛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이미 얻은 영원한 생명의 보장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불붙어야 할 진정한 생명의 길이며 삶의 목표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인생을 포기하거나 방황하지 않는다.

이런 삶의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세상의 안개와 흑독한 인생의 시련과 아픔이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할 때,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잡고 가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이인규 편집국장: 토마스맹
지사장: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드, 시애틀

대표전화: (213) 739-0403

팩스: (718) 228-9506 / E-mail: chdailya@gmail.com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한 인간 영혼의 가치와 소중함은 그 사람을 누가 사랑하는가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 헨리 스쿠갈 (16세기 청교도 목사)

거룩한 열정 HOLY PASSION CONFERENCE

주제: 디바인 퍼스펙티브에 대한 핵심 강의
(Essential Lecture of Divine Perspective)

• 디바인 퍼스펙티브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고 계신 시각을 말할

하나님을 아는 놀라움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알기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길 원하십니까?
다윗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보기 원하고 알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열정 컨퍼런스의 두가지 키워드

1.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생각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춰 성경 말씀을 살펴 볼 것입니다. (Divine Perspective)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퍼스펙티브)을 알아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아는 놀라움으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2.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현신하신 마음들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Fullness of God)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공부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놀라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될 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에 불 붙여져서 하나님을 아는 놀라움으로 여러분의 삶이 압도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강사: PASTOR DAVID K. LEE (데이빗 리)

- 현, 예수님을 향한 열정 미니스트리 대표
 - 하베스트 교회 담임 역임
 - 어노인팅 리더스 미니스트리 대표 역임
 - 포도나무교회 부교역자
 -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과 알리는 사역에 헌신함 (이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헌신과 열정, 그리고 불타는 사랑...)
- www.PFJM.org | davidlee@pfjm.org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
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2)

예수님을 향한 열정 미니스트리는 다음 세대를 예수님을 향한 열정에 불타는 *선두주자로 준비시키는 일에 헌신한 사역 단체입니다.
*A MAN OF DIVINE PERSPECTIVE |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갈망하고 선포하는 자: 열 3:8, 사 42:16-25



Kobe Pearl LAS VEGAS Mother's Day Special Sale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화려한 반지파티로의 초대”

\$99부터 \$999까지



Kobe Pearl LAS VEGAS
L.A 한인타운 등 4곳에서 펼치는
어머니날맞이 특별진주보석쇼



무려 1천여점 전시 돌풍 예고!!
고베펄의 다양한 디자인의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한국 세공 진주반지들을 만나세요.

BIG SALE



프리미엄 日本산 핵진주 반지



천연 홍산호 반지



천연 옥 반지

진주, 홍산호, 옥
BIG3 반지

남양진주 . 해수진주 . 아코야진주 등 4000여점 전시 특가 판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세공기술과 진주메카인 일본공법으로 제작된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의 신제품 진주 보석류 전시 특가 판매



HELEN AIKO PREMIUM PEARL

고베펄 최고급 프리미엄 Helen Aiko 호주산 황금 남양진주 비드 목걸이 전시 및 판매

“고베펄의 프리미엄 라인 HELEN AIKO 제품 전시 및 판매”

최고급 고베펄 아코야 AKOYA 진주목걸이 특가세일

고베펄 아코야진주 목걸이 구입시 아코야 STUD진주 귀걸이 선물증정

오리지널 일본산 최고급 아코야 진주는 고베펄에서 구입하세요!

아코야 진주 한줄 비드목걸이 (6.5mm - 7.5mm)
\$799

아코야 진주 두줄 비드목걸이 (6.5mm - 7.5mm)
\$1299

자식들과 남편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어머니, 아내에게 고베펄이 마련한 BIG3 진주목걸이를 어머니날 선물로 미리 준비하세요.

※ 비드목걸이 BIG3 제품은 품질가능성이 있으니 구입을 서두르세요.

reg. \$499
\$99
진주 비드 목걸이 (7mm - 7.5mm)

reg. \$1499
\$259
진주 비드 두줄 목걸이 (7mm - 7.5mm)

reg. \$1599
\$299
진주 비드 목걸이 (8mm - 8.5mm)

www.kobepearl.com
고베펄온라인 쇼핑을 오븐

포털사이트에서 “고베펄” 또는 “진주보석”을 검색해보세요.

- 고베펄 온라인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특별가격
- 고베펄 블로그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다양한 위클리 행사정보
- 인터넷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편리한 전화 결제시스템

고베펄 온라인 사업부

606 S. Hill St #1017 Los Angeles CA 90014
문의 및 주문전화 213-590-2218



문의 전화 **213.308.6326**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 오후 8시까지 영업합니다.

- * 행사 특성상 특정 인기 행사 품목은 품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 행사 장소에서는 제품의 수리 및 A/S를 하지 않습니다. 수리 및 A/S문의는 고베펄 본사 (인보이스 뒷면 참조) 문의해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로렌하이츠 행사일정안내]

행사일정: 2012년 5월 2일 (수) 단 1일간
행사장소: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Best Western Plus
주소: 18880 Gal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1층 놀스로드룸 North Rowland Room (1st Level)

[밸리 행사일정안내]

행사일정: 2012년 5월 5일(토) 단 1일간
행사장소: 레디슨호텔 Radisson Hotel Chatsworth
주소: 9777 Topanga Canyon Blvd, Chatsworth, CA 91311
베네지아룸 Venezia Room (Main Level)

[엘에이 한인타운 행사일정안내]

행사일정: 2012년 5월 3일(목) 부터 4일(금)까지 2일간
행사장소: 로텍호텔 Rotex Hotel 2층 뱅킷룸
주소: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올림픽과 그라마시 Olympic blvd + Gramacy)

[가든그로브 행사안내]

행사일정: 2012년 5월 6일(일) 단 1일간
행사장소: 라마다 플라자 Ramada Plaza
주소: 1002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2층 퍼시픽홀 Pacific Hall (2nd Level)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당뇨에는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이 억제됨
4. 식후에만 삼회 복용합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 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금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라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liff Ave. Lancaster, CA 93535

한방 감기약

자연생약으로 모든 감기에 99%효과!
감기 종류에 맞춘 순수 한방 조제약! (\$20~\$30)

새빛 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703-5216

황씨 냉동. 에어컨. 히팅

신속, 정확, 저렴 전지역 가능, 24시간 대기

상업용: 마켓 식당 리프, 냉동냉장, 웨어하우스 교회 센츨럴 A/C, Walk-in 냉장, 냉동설치 및 수리, Ice Cream 머신수리

가정용: LG벽걸이 A/C설치 수리, 하우스 아파트 센츨럴 A/C 냉장고, 설치 및 수리

(213)220-7131 (626)807-8799

Kate Cho

헤어디자이너 케이트 조

Man's cut \$10.00 Women's cut \$20.00

영양염, 윌빙염, 아재염 \$50.00 아이라이트, 코팅, 염색 \$50.00

매직 스트레이트 펠 \$80.00

반드시/꼭 예약 필수!! 213.505.5756
450 S. Western #101, Los Angeles, CA 90004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포드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30여개국 해외진출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포드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면도바르기도하는 알로에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증,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최고가 현금매입

금 삽니다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비영리단체 설립 및 면세허가

(교회, 선교단체 등)

- 처리경험 풍부 www.UsCpaLegal.com
- 비영리단체 세무상담, 장부정리(Quick Book), Tax 보고
- 일반 영리 사업체 설립 및 각종 세무보고
- IRS, EDD, FTB 등 세무감사 수감

Kim & Accountancy Tel. 714-226-0900

sasaferterschool.blogspot.com

믿고 맡기세요.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K~6

Math English E.S.L Writing Bookclub

APPLE TREE ACADEMY

Pick up, 전담한 선생과 함께 학교공부 준비를 100% 도와 드립니다.

213.507.5045

가디언 컴퓨터 수리

213-663-8007 213-536-4696

317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이중창문교체전문

햇빛차단 Low-E3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그레이스 최 최추신경 한방병원

www.herbsabu.com

726 S. Wilton Pl, #2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1-8228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통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홈 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364.2124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외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디스크, 중풍부터 다이어트, 중독 치료까지

양·한방 다각도 치료 한 곳에서 만난다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한방병원

LA 한인타운 윌튼과 77가에 위치한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한방병원'은 이름 그대로 한방과 척추신경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이 병원 그레이스 최 원장은 클리블랜드 카이로프랙틱칼리지를 졸업하고 척추신경의로 활동해 오다 중국에 건너가 공부하고 LA삼라한의대를 수석졸업해 한의사 면허도 취득했다.



그레이스 최 원장

전문의로서 환자를 진료해 온 지 올해로 벌써 23년째다. 벨리와 토렌스에서 개업의 명성을 떨치다가 3년 전부터 LA 윌튼길에서 다시 환자를 맞이하고 있다.

최 원장은 고등학교 때 미국에 건너 온 1.5세라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도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안다. 덕분에 미 주류사회 환자들이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한다. 특히 PGA, LPGA 선수를 대상으로 한 레이저 치료 전문 한방병원으로 알려져, 헐리웃 영화계 인사들도 병원을 많이 찾는다.

20여 년의 임상경험을 비롯해 양·한방 치료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환자를 진단하고 돌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 원장은 "교통사고, 목 디스크, 직장상해, 오십견, 중풍, 두통, 물리치료 등의 치료는 환자에 따라 척추신경과에서 교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침, 뜸, 부항 등의 한방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환자들은 척추신경과와 한의원을 둘 다 갈 필요없이 이곳에서 한꺼번에 진단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진료비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뿐 아니라 자체 개발한 약재가 효험이 있어 입소문을 타고 최 원장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24시간 이상의 한약재가 들어간 생리통약과 여드름약을 비롯해, 감기, 갱년기장애, 불면증, 빈혈 등에 먹는 약도 나와 있다.

내장 비만 다이어트 약의 경우, 몸 속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는 원리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배고픔이 없고

요요현상 방지는 물론, 위장 크기도 서서히 줄어 준다. 그러면 내장에 있는 독소와 내장벽에 치석같이 끼어 있는 숙변을 파내 내장 주름을 원상태로 복귀시키고 원활한 장운동으로 피부까지 맑아진다.

이와 더불어,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술, 마약, 도박, 담배 등의 중독증 전문치료 의사이기도 한 최 원장은 "마약에 중독된 한인청소년들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중독증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 역시 양·한방 두가지 치료를 병행해 뇌가 자연적으로 엔돌핀을 생성하게 하여 몸이 니코틴을 찾는 것을 막게 한다. 현재 금연 클리닉도 진행 중으로 200불로 담배를 끊을 때까지 치료해 준다.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한때는 의료 선교사를 꿈꾸기도 했다는 최 원장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일종의 선교라는 마음으로 저렴한 가격에 약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약은 병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병원 웹사이트(www.herbsabu.com)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전화를 이용한 진료도 무료 이용 가능하며 약을 배송해 주기도 한다.

▶주소: 726 S Wilton Pl. Los Angeles, CA 90005
▶문의: 213-381-8228
정한나 기자

아직도 형광등 쓰세요? LED 조명으로 바꾸세요

긴 수명 고효율... 5년 워런티까지 제공 친환경 LED 조명이 대세

한인사회에도 발광다이오드(LED) 열풍이 불고 있다. LED 전문 생산업체 '렉셀 마스 LEDs(LEXELL by MARs LEDs, 이하 렉셀)'는 착한 가격에 효율적인 LED 조명을 제공하고 있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전한 빛"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LED 조명은, 기존 조명에 비해 전기도 절감 효과가 있고, 에너지 절약은 물론 긴 수명(최대 5만 시간)으로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 형광등에서 나오는 자외선 같은 유해 파장이나 깜박거림 현상이 없어 눈의 피로감이 적다. 형광등에 들어 있는 수은이나 납 같은 유해 물질도 없다.

그만큼 친환경적이어서 전세계적으로도 LED 조명이 확산되는 추세다. 한국정부도 2013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저효율 조명 기기인 백열전구를 곳곳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LED 조명으로 대신할 방침이다.

렉셀의 마이를 김 대표는 "LED 조명으로 교체할 경우, 기존 전기요금에 비해 5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일반 전구와 같이 필라멘트 단락 현상이 없어 더욱 오래 쓸 수 있어 경제적이다. 여기에 인체에 해로운 수은을 함유하지 않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미세해 그린 에너지 조명 기구로도 손색이 없다"



교회, 학교, 상가, 주택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LED 조명이 한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유해 파장 없고 시력 보호 효과도 있어 각광

고 설명했다.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렉셀의 LED 제품은 7만5천명의 직원을 보유한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며,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조명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조명 광원을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렉셀은 LED 램프, 가로등, 디지털 사인, 실내외 디스플레이, 신호등, 자동차 조명, 크리스탈 조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쓰이는 LED 라인을 모두 취급한다. 따라서 교회, 학교, 빌딩, 상가, 주택, 창고, 주차장, 쇼룸,

주유소, 마켓 등 장소와 목적에 따라 적합한 라인업도 갖추고 있다. 또한 'UL Listed' 인증과 함께, 전 제품에 대해 5년 워런티를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

한편, 렉셀은 현재 미 전역에 100개 지점 개설을 목표로 각주마다 에이전트, 또는 투자·운영자 등을 모집하고 있다.

또 웹사이트(www.marled.net)를 통해 에너지 절약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문의: 213-427-9848

정한나 기자

고품격 보석, 고베펠 보석 전시회로 오세요

고베펠, 어머니날 맞이해 파격 세일로 성원에 응답

진주 전문 고베펠 사가 어머니날을 맞이해 진주와 홍산호, 천연옥 등 빅 3 반지 1천여점을 준비해 깜짝 놀랄 파격 세일에 나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라스베가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진주 전문 고베펠 사가 마련한 이번 보석 전시회는 전시될 만지 수만 1천여점이 넘으면서 전시장의 절반 이상이 반지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빅 3 반지는 대부분 한국 강남과 중로에서 이뤄진 정교한 세공으로 그 단아함과 우아함이 고품격을 자랑하는 데다 가격도 시중가의 절반이 안될 정도로 저렴하다.

고베펠 관계자는 "어머니날을 앞두고 그동안 고객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반지의 가격은 99불부터 999불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에서도 보석의 가격을 최고 80%까지 할인하기로 했는데 천연 양식 진주 비드 목걸이 6달러에서 7달러의 경우 종전 499달러를 단돈 99불에, 진주 비드 두줄 목걸이의 경우 소매가 1299불에서 259불에 특별 세일가로 구입할 수 있다.

고베펠 사는 특히 뉴욕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인공 핵진주도 최고 80%까지 긴급 대할인 판매하며 유색 보석을 포함한 신



고베펠 사가 진행하고 있는 보석 전시회. 보통 4천여점 이상의 보석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제품 5백여점을 대거 선보여 고객들의 선택을 폭을 넓힌다.

진주 전문 고베펠 사가 주최하는 전시회는 보통 4천여점 이상의 보석이 전시되며 일본식 공법에 한국의 정교한 세공이 더해져 미주 한인여성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

고베펠 사가 남가주 지역 일원에서 진행하는 전시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다.

[엘에이 한인타운 행사 일정 안내]
2012년 5월 3일(목)부터 4일(금)까지 2일간 로테스호텔 2층 뱅킷룸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올림픽과 그레머시)
[밸리 행사 일정 안내]
2012년 5월 5일(토) 단 1일간 래디슨호텔(Radisson Hotel Chatsworth)
1층 베네치아룸(Venezia Room)
9777 Topanga Canyon Blvd. Chatsworth, CA 91311
[가든그로브 행사 안내]
2012년 5월 6일(일) 단 1일간 라마다플라자(Ramada Plaza)
2층 파시픽홀(Pacific Hall)
1002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문의: 213-308-6326 빅터 박 기자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우리 가족은 아이토크비비로 통한다!

로컬, 장거리,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아이토크비비로 통신요금 절약!

\$999 /월

글로벌 플랜 ~~\$24.99~~

글로벌 플러스 플랜 Global Unlimited Plus Plan ~~\$34.99~~ **\$14.99** /월

행사기간 2012년 5월 15일 까지

30일 환불 보장!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1.800.875.8318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6시 ~ 저녁 10시 30분 (P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하셔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아이토크비비 공인 가입센터 모집

한인타운 내 매장을 보유하고 계신분 또는 전화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가입센터 상담전화: **703.348.754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2012 최신행 EQUUS

8 스피드의 넘치는 힘과
력서리한 중후함을 느껴보세요

599+TAX (STK:052436)

Closed and lease 48 month plus tax
MSRP: \$59,650 Residual : \$29,228.5
T.D.O: \$4,995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Coupon
(O.A.C)



800대를 수용하는 에쿠스를 가장 많이 보유한 북미 NO.1 현대딜러



2012 Sonata GLS

EPA 기준 대형차급 실내공간
2011년 정부 안전기준 별 5개를 획득한 최초의 중형세단

165+TAX (STK:503039)

Closed and lease 48 month plus tax
MSRP : \$22,065 Residual : \$11,033
T.D.O : \$2,299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 Military Rebate, Valued owner Rebate
(O.A.C)

5월 한달간 무이자(0%)에 \$500을 더 드립니다.

5월 한달 푸엔테힐스 현대가 드리는 혜택

(행사기간 2012년 5월1일~31일)

1. 구입하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2. 평생 카워시



현대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Fleet Manager
찰리 정
213.276.8959



Sales
스티브 장
213.235.6825

America's Best Warranty
10 Year/100,000 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HYUNDAI
You said it. We heard it.
IN THE BOOTH.



WWW.PHHYUNDAI.COM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